

**300-5-124 신문조사(權榮台 외 33명 치안유지법 위반) 6****■ 權榮台 외 33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기록 수록(문서 300-5-119부터 계속)**

- 1935년 4월 26일 적색노동조합 및 反帝동맹사건 검거에 관한 건의보고가 있었으며, 李載裕 · 卞洪大 · 安炳春 · 李順今 · 金三龍 · 崔小福 · 李仁行 · 邊雨植 · 李景仙 · 南萬熙 · 任澤宰 · 鄭龍山 등이 관련자이다. 南萬熙 · 李仁行 · 李順今 · 安炳春 · 辛海甲 · 禹燦九 · 邊雨植 등의 수색처분과 差押이 있었다.
- 1934년 4월 27일 卞洪大 · 李順今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고, 안병춘의 청취서 작성 1회가 진행되었다(2회는 28일에 진행). 4월 28일 南萬熙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1 · 2회 진행되었으며, 金令媛의 청취서가 작성되었다. 29일 南萬熙의 3회, 4회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고, 30일 李丙驥 · 柳福童 · 金花姬 · 吳一順 · 權五相 등의 청취서가 작성되었으며, 5월 1일 申德均의 청취서가 작성되었다.
- 1934년 5월 1일 南萬熙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고, 동일 金在東 · 金福今 · 李貞賢 등의 청취서 작성, 2일 曹昌珠, 3일 金福今의 청취서가 작성되었다. 5월 4일 南萬熙의 6회 피의자 신문조사, 5일 任澤馨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고, 동일 李貞賢 2회 청취서가 작성되었다.
- 5월 6일 任澤宰 2회 · 鄭龍山, 7일 朴日馨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고, 6일 沈鍾晨의 증인조사가 작성되었다.